**연중 제29주일/전교주일(2018년 10월 21일) 강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오늘은 전교주일이고, 오늘 미사는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복음화’는 뭐고 ‘전교’는 또 뭐죠? ‘복음화’와 ‘전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복음’은 한 마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거죠. 이것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얼마 후에 예수님의 승천까지 직접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더이상 주저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사고로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을 목격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왔고, 그리고는 눈 앞에서 하늘로 둥실 떠서 올라갑니다. 이건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 놀랍고도 엄청난 사실을 전해주러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때부터 세상 곳곳에, 세상 구석구석까지 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때 제자들이 전한 것은 단순히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을 믿으라는 ‘신앙’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것도 종교를 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서로 다른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인들은 유다교를 신봉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다교는 유다인들이 믿는 종교죠. 유다인들은 한 분이신 하느님, 세상의 창조주 하느님을 믿었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율법을 지키지않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고, 이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믿었죠. 이것이 그들이 믿는 종교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다인이었죠. 예수님도 유다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종교를 알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하느님을 믿었던 유다인들은 오직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가난하거나 형편이 안되서 율법을 알고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 공동체와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관념을 뒤집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데만 급급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종교행위만 하고, 스스로 잘난척, 스스로 똑똑한 척 행동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모르는 유다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과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하늘 나라는 열려 있고, 그들도 다 구원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희망 가득한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예를 가장 잘 드러낸 이야기가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길에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었던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제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제는 성전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치는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부족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 중에 사제가 선발되었었죠. 유다인들 중에서도 하느님을 가장 열심히 믿고 가장 거룩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제와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 갑니다. 가장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는데는 인색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하느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또 이 사람의 곤란한 상황에 개입하기를 꺼려한 거죠. 그들은 하느님 사랑의 실천 보다는 자기 입장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이런 위선적이고 잘못된 종교 행위를 예수님은 늘 경고하셨습니다.

반면에,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 여겨졌던 사마리아인,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믿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세상에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나중에 구원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하느님의 참된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것이 ‘복음화’입니다. 하느님이 나 같은 죄인들을 다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하느님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주셨다는 사실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이 세상의 ‘복음화’입니다.

가끔 길거리에서 선교한답시고,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길거리에서 가두선교 한답시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 유인물 나눠주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 교회 오라고, 자기네 교회 선전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신자들이 많고, 교회 헌금이 많아서 교회가 아무리 운영이 잘 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는 교회일 뿐이지, 진정으로 복음화된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선교는 종교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 믿으세요. 성당 오세요.” 하고 외치는 것은 선교 행위는 될 수 있어도, 참된 복음화는 아닌 거죠. 복음화는 내가 직접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고 느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게 되고 성당을 나오게 되면 그것이 또한 참된 선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하고, 아무리 아는 것 많고, 종교에 대해서 박식하고, 또 아무리 좋은 말로 기도 잘한다고 해도,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 없이 똑똑하기만 하고 잘나기만 한 사람이 많으면, 성당 갈라지기만 하고, 싸움만 일어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누구보다 사랑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괜히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신자로서의 사명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복음화입니다.

단순히 종교행위만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먼저 마음 속에 따뜻한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